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속도… 스테이블코인 등 쟁점 변수

민주당, 6·3 선거 직후 입법 목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정립 등 포함 스테이블코인 범죄 악용사례 늘어 원화 발행시 규제 방향성 논의돼야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비롯한 ‘가상자산 선진화’ 논의가 활성화됐다. /뉴시스

가상자산의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 이후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 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거래 소 규제 완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법안의 주요 내용을 놓고 여야 간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하반기 내 입법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여러 쟁점이 여전히 입법의 불안 요소로 남았다.

31일 가상자산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지난 27일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추진을 재확인했다. 이날 민주당

은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직후를 입법 목표 제시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정립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가상자산 사업자의 심사기준 마련 ▲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상자산 산업의 사후규제 가능성을 해소하고 국제 표준에 맞는 규제체계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법안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파생상품 허

용 등 규제 완화도 기본법과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민주당 디지털자산TF 간사 안도걸 의원은 “이번 기본법 제정이 (가상자산 시장을 아우르는) 제도 개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관련 법 체계 정비와 함께 추진해야만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야 간에 가상자산 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제 표준에 맞는 규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가상자산 기본법의 입법이 불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중앙은행 발행 코인(CBDC)의 역할 등을 비롯한 쟁점은 남았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역할과 위험성에 대한 논의도 부상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비용 효율성에 주목해 송금·결제 등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겼지만, 실제 실물경제에서의 사용은 여

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을 비롯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원화 코인 발행시 규제 방향성 및 통제 방안 또한 논의돼야 할 부분이다.

미 상원에서 논의중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도 변수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증권성’과 ‘상품성’으로 분류하는 법안이다. 중복규제에 노출된 가상자산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내용을 규율한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 대다수가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클래리티법이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지난 7월 미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법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회를 통과했다.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인준되려면 미 민주당에서 7표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클래리티법에 전·현직 대통령에 적용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치르는 만큼,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반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전망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나 핀테크 업체와 연계해 원화코인 발행 및 유통 기술에 대한 실증에 나섰고, 간편결제 업계에서는 블록체인의 기반의 결제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업계는 물론, 금융권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에 발맞춰 기술 실증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면서 “기본법이 입법 절차에 돌입하면서 법안의 세부 내용이 확실해지는 등 진전이 생긴다면, 각 업체들도 상용화 준비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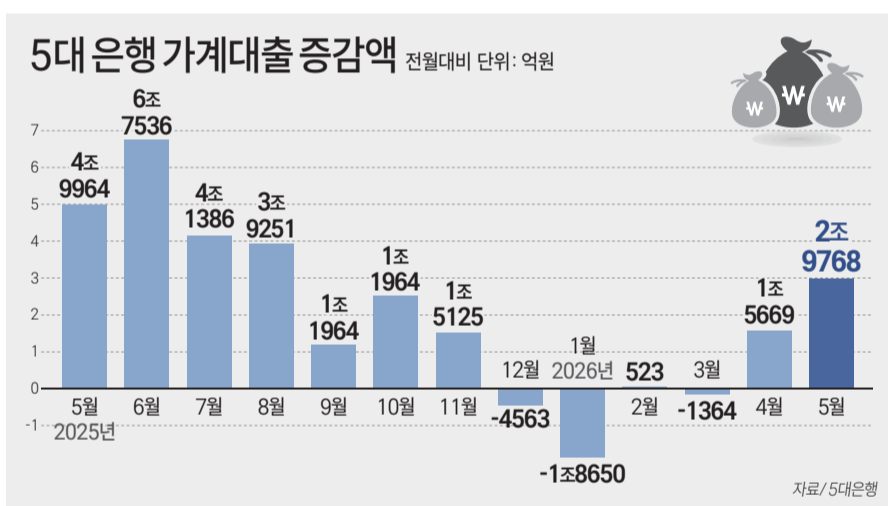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신용대출 한달새 2.6조 ↑… ‘빚투’ 증가세

5월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 3조
신용대출 증가액 주담대의 100배



주요 시중은행의 5월 신용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2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간 주택담보대출이 25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00배를 넘는 수준이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투자에 나서는 차주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70조 27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말 767조 2960억원 과 비교하면 2조9768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8월(3조9251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번 가계대출 잔액은 신용대출이 이끌었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6조9909억원으로 4월 말(104조 3413억원)과 비교해 2조6496억원 증가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2조2693억원으로 지난달 말(612조2443억원)과 비교해 250억원 증가에 그쳤다. 신용대출 증가액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100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신용대출이 증가한 배경에는 증시 상승세가 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이 신용대출을 활용해 주식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28일 기준 131조1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월 말(124조7591억원)과 비교해 6조3727억원 증가한 규모다. 증시 상승에 따른 투자 대기자금이 늘어나면서 신용대출 수요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기업대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8일 기준 대·중소

기업대출 잔액은 868조86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말(866조646억원)과 비교해 2조8046억원 증가한 규모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된 가운데 기업금융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강조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은행권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된 상황에서 기업금융이 주요 성장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현대건설, 압구정 2·3구역 이어 5구역 수주

공사비 1.5조, 1397가구 조성 사업
신반포 19·25차 ‘삼성물산’서 수주
예정 공사비 4434억 616세대 규모

현대건설이 서울 압구정 재건축사업에서 2구역, 3구역에 이어 5구역까지 수주에 성공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전일 열린 서울 강남구 압구정 5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DL이앤시를 제치고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압구정 5구역은 압구정동 한양1·2차 아파트를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1397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갤러리 아벽화점과 청담 명품거리, 압구정 로데오 등을 제안했으며, 영국 글로벌 건축 그룹 RSHP와 협업해 하이테크 설계 철학을 구현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다. 기존 ‘압구정 한양’을 ‘압구정 현대’로 바꾸는 변화를 강조해 ‘온 더 뉴(OWN THE NEW)’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단순한 한강 조망권 확보를 넘어 광복 파노라마 조망과 3m 우물 천장고 등을 제안했으며, 영국 글로벌 건축 그룹 RSHP와 협업해 하이테크 설계 철학을 구현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5구역은 새로운 ‘압구정 현대’의 하이엔드 주거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

할 수 있는 사업지”라며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과 설계 완성도는 물론, 압구정 2구역 등에서 축적한 신속통합기획 경험 등을 바탕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까지 함께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9·25차 재건축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가져갔다.

전일 열린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삼성물산이 59.9%의 득표율로 포스코이앤시를 앞섰다.

이 사업은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 19차·25차, 한신진일, 잠원CJ아파트 등 4개 단지를 통합해 추진하는 재건축이다. 지하 4층~지상 49층, 6개동, 61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예정 공사비는 약 4434억원 규모이며,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 ‘레미안 일루채리’를 제안했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도보 3분 이내로 인접한 역세권이다. 신동초·신동중·경원중·현대고 등이 인근에 위치했으며, 뉴코아와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 병원, 잠원 한강공원 등 생활 인프라까지 갖춘 반포 지역 핵심 입지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단지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는 차별화 설계와 최상의 금융 조건 등을 제안하며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었다”며 “레미안 원베일리·리오센트 등을 통해 축적한 통합 재건축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시니어 고객 위한 ‘신한 쏠메이트 체크카드’

연회비 없이 이용 금액의 0.4% 적립

신한카드와 신한은행과 함께 시니어 고객을 위한 ‘쏠(SOL)메이트 신한카드 쏠 플랜 체크(이하 쏠메이트 체크카드·사진)’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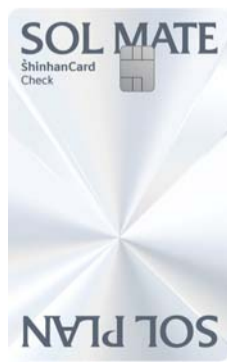
이 카드는 기존 ‘쏠메이트 신한카드 쏠 플랜’의 체크카드 버전이다. 시니어 고객을 위한 각종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별도의 연회비는 없다.

먼저, 쏠메이트 체크카드는 국내외 전 가맹점 이용 금액의 최대 0.4%를 기본으로 적립해 준다. 시니어 고객이 자주 이용

하는 가맹점에서는 최대 2% 특별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 적립은 병원, 마트, 카페 등에서 적용된다.

혜택은 월 통합 적립 한도 내에서 쏠포인트로 적립된다. 전월 이용 금액 2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 0.2%, 특별 1.0%가 적립된다. 6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 0.4%, 특별 2.0% 적립을 각각 월 3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한카드, 신한은행 이용 실적을 모두 충족할 경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네이버플러스, 쿠팡와우 등 디지털 멤버십 이용 금액에 대해 월 최대 5000



포인트도 제공한다.

혜택은 전월 이용금액 60만원 이상, 전월 결제 계좌 잔액 100만원 이상을 15일 이상 유지한 고객에게 제공된다. 결제 계좌 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5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적립된 포인트를 신한은행의 입출금통장 ‘쏠 플랜 포인트박스’에 입금하면 1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포인트박스에 입금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연 5%의 금리가 적용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이번주 전국 7개 단지서 2437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6월 첫째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243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555가구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사우동 ‘호반써밋푸무Ⅱ’, 경기 수원시 평동 ‘수원역아너스빌터입원’, 강원 춘천시 소양로1가 ‘더리치먼트드림트레트소양’ 등에서 청약의 진행한다.

호반건설은 경기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주상복합 아파트 ‘호반써밋푸무Ⅱ’를 분양한다.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5개동, 전용면적 59~182㎡, 총 2577가구 중 96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오피스텔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1개동, 전용면적 84㎡, 총 98실 규모다.

모달하우스는 6월 3일 지방선거로 인해 개관 단지가 없다. /안상미 기자